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생명과학과 하민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기아라는 주제는 일반 사람들에게 다루어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람들 간에 대화를 한다면 보통 일상과 관련되어 있는 말을 하는 만큼 기아는 그만큼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비만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모순되어 있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느 한 쪽에서는 음식으로 인해 죽고 저 반대편의 이들 역시 다른 이유로 음식으로 인해 죽는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나는 기아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어 왔고 책에서 다루고 있는 대기업과 정부 사이의 유착 관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선진국이 후진국의 정치에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개입하는 것을 보면서 읽는 내내 충격을 받았다.

맬서스의 저서 <인구론>에서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 인구에 대한 억제는 자연히 된다는 것을 언급한다. 물론 이 예언은 과학을 발전을 통해 빗나간 예언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문장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학의 기술로 농산물과 축산물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인간이 소비 가능한 자원을 예전에 비해 많이 얻어낼 수 있으면서도 왜 굶주리는 사람은 훨씬 많아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자연스레 결론은 식량에 대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잉여 식량을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것에 환경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환호할 일은 아닌 듯싶다.

책에서는 다루어 지는 기아 문제는 이해관계에 얽혀 있고 그 나라들 간의 문화적, 정치적 차이로 인해 현재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이다. 분명 좋은 목적으로 구호단체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설령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해줘도 각료들이 빼돌리거나 반군 세력의 기반이 되는 등 자칫하다가 정치적 개입이 되어 도리어 여러 방면으로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UN에서는 국제 사회의 원조를 통해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며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에서는 농업을 하기 힘든 환경이거나 국민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조차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상태이다. 더군다나 식량 주권을 잡고 있는 세력은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들이며 이들을 규제하거나 사회적 공헌을 하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성장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에게 살기 위한 식량을 나눠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의 영향력과 자본이 큰 만큼 식량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본 것은 기아 문제는 이미 꼬일 대로 꼬여 단순한 지원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저자는 정치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았다. 나는 정치 방면에서 노력해야 할 점은 분명히 있지만 관점을 바꿔 생각해보면 결국 과학이 발전되어야 그 때서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유전 공학을 통해 만들어진 비타민 A가 함유된 Golden Rice나 사료의 재료 배합을 통해 소화 흡수율이 좋은 제품을 개발하여 동물에게 쓰이는 곡물의 양을 줄이는 연구 등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이며 한국에서는 줄기세포 규제로 인해 불가능하지만 줄기세포를 이용한 배양육이나 인공 우유는 외국에서 전폭적인 투자를 받으면서 대중에게 선보이기 위해 연구 중이며 미래 대체 식량으로 거론되는 곤충들도 식량화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책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유럽 지역 등 상당 지역에서 구조적 기아가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 원인이 정치적 문제와 환경 오염, 사막화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이라고 해서 기아와 전혀 관련이 없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의식주 중에 가장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식(食)이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정식보다는 가공 식품이나 조리가 간편하거나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 제품을 사 먹는 게 일상화되었다. 우리가 주로 먹는 라면이나 과자 등은 원료로는 국내산을 쓰지 않으며 외국산을 사용한다. 소비자들을 가격 지불 능력을 고려하면서 기업이 수지타산을 계산하면서 원료를 쓰는 것인데 만일 이 원료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들이 담합을 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고 같은 양을 사 먹어야만 한다. 당장 우리가 기아에 허덕이지 않을 걱정은 없겠지만 20세기 한국보다 잘 살던 나라가 지금은 기아에 허덕이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식량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 수 있다. 한국은 식량 생산에 대한 비중이 외국의 의존도가 높고 최근 온난화로 인한 해충의 번식이나 농작물 생산량 감소,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 나라 역시 식량 안보가 그리 철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